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전면 개방한다

전주시, 이팝나무꽃 개화 시기 맞춰 4월 26~27일·5월 3~6일 주말·공휴일 풍성한 볼거리 제공

전주시가 매년 봄 새하얀 이팝나무 꽃이 아름답게 활날리는 전주시 팔복동 철길을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오는 4월 26일과 27일, 5월 3일~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맞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팔복예술공장 일원 이팝나무 철길(기린대로~신북로) 약 630m 구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팝나무 철길은 지난해 처음으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3주간 주말과 공휴일에 개방됐다. 작년에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목표로 시작해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먹거리 장터가 운영됐다. 또, 같은 기간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한 '앤디워홀' 전시회와 연계해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기도 했다.

올해 두 번째 개방을 맞아 방문객들의 요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개선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주·야간 개방 구간을 나눠 낮과 밤의 다른 매력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주간(오전 10시~오후 6시)에는 기린대로부터 신북로까지 약 630m 전 구간을 개방하고, 야간(오후 6시~오후 9시)에는 건널목이 위치한



전주시가 매년 봄 새하얀 이팝나무꽃이 아름답게 활날리는 전주시 팔복동 철길을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금학교부터 신북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경관조명을 집중 설치해 이팝나무 철길의 낮과 밤의 매력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도 이번 철길 개방 행사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4월 26일과 27일에는 이를 동안 전주시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부스를 운영,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다양한 상품과 상권을 알릴 계획이다.

이어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동안에는 이팝나무 철길에서 '전주 함께장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주시민과 상인들이 참여하는 '전주 이팝나무장터'를 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팔복동 철길 개방행사와 연계해 '전주 굿즈'를 통해 전주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전주 여길로'를 활용해 전주 상권을 적극 홍보하는 등 전주의 상품과 상권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함께 먹거리 판매 부스인 '철길식당'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이팝나무 철길 개방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 운영 과정을 토대로 해당 구간에 화장실과 쉼터를 추가 배치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였으며, 개방 구간에 야자매트와 조명을 설치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지난해 첫 개방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이팝나무 철길을 올해 다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면서 "방문객들이 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문화 체험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개방행사 기간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앙리 마티스 & 라울 뒤피'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뿐 아니라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춘 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이번 통합 교육은 교육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참여자들 간에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동욱 전주부시장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전주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전주시도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니어클럽,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교육 진행

노인일자리 교육으로 활기찬 노후 지원

전주시니어클럽,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교육 진행

전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전주시니어클럽은 11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93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니어클럽에 소속돼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따로 근무해야 하는 참여자 간의 교류와 화합을 촉진하고, 기관에 대한 소속감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동욱 전주부시장과 남광우 전주시의회 의장,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 도·시·의원과 주요 내민들이 참석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응원했다.

교육은 △안전 및 부정수급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주의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효춘 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이번 통합 교육은 교육뿐만 아니라, 참

전주승화원, '청명 한식' 기간 개장 유골 화장 확대

전주승화원이 청명 한식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린다.

11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청명 한식을 전후로 총 5일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개장 유골 화장 기수를 30~50기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87기인 평일 하루 개장 유골 화장 기수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것이다.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는 20일 0시부터 할 수 있다.

화장 예정일 14일 전부터 화장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선 먼저 묘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 신고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장 유골 화장 이용료는 전주·완주·진안·장수 소재가 5만 원, 도내 타 시·군이 20만 원이다.

효자공원묘지 소재 개장 유골의 경우 화장 이용료가 전액 감면되며, 자연장을 포함한 봉안시설 사용료도 50% 감면된다.

우범기 전주시장, 혁신동서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진행

시장 운영 방향 공유·주민 주요 관심사·생활 속 불편 사항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은 11일 덕진구 혁신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혁신동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혁신동은 전주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전주를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 지역으로, 현재 1만3054세대 3만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2025년 시장 목표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의 비전을 제시하고, 참석자들과 5대 분야 18대 전략에 대한 시장 운영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이어 우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혁신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혁신동 주민들은 △기지제 수변공원 명품화 추진방안 △혁신도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만성지구~기지제 보행육교 설치사업 추진 상황 △황방산 터널개통 △만성지구 주차 문제 등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우 시장은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대답해 참석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시장에 반영하고,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



우범기 전주시장은 11일 덕진구 혁신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혁신동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해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도 항상

삼천1동 통장협의회,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나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1동 통장협의회(회장 한희숙)는 봄맞이 관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삼천1동 통장협의회와 삼천1동 주민센터 직원 등 35명이 주민센터 인근 도로와 거마공원 일대에서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특히, 관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위주로 겨울동안 축적된 생활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수거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한희숙 삼천1동 통장협의회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주민들이 주민센터와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통장협의회에서 앞장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